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심영의

전남대학교

〈논문요약〉

5·18항쟁을 대상으로 한 문학 텍스트들에서 민중계급은 투쟁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지식인은 대체로 항쟁의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묘사된다. 항쟁의 발단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었으나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무장 항쟁의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몸을 피해 숨거나, 아니라도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을 뿐이다. 결사항전이나 무기회수를 통한 수습이나의 대치국면에서 민중계급은 죽음을 불사한 항전을, 지식인들은 현실과의 타협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항쟁에서 지식인들은 단적으로 말해 무용한 존재인가? 누가 그날 최후까지 총을 들고 항전했는가를 기준으로 항쟁의 주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국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한 상황에서 무장 항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려는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5·18항쟁의

의의를 왜소화하고 만다. 그것은 항쟁이든 운동이든 공유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생동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타자에 대한 책임은 타자의 요청에 의해 내가 타자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휴머니즘의 근원은 타자이며, 이런 휴머니즘 안에서의 책임이 나의 유일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은의 말처럼, 그 날 지식인들은 일련의 투옥사태와 해직·감시의 수난을 제외하면 항쟁의 현장에서 멀리 도피하고 말아서, 정작 한 사람의 시인도 민중적 전사로 싸운 바 없고, 그 처절한 학살의 피투성이 희생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떤 문학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날 모두가 충을 들고 장렬하게 죽었어야 하는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가? 많은 5·18문학은 이 죄의식에 대해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집단적 강박일 수 있다. 도피하거나 모두 살아남기를 열망했던 이들-지식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으로 긍정할 수는 없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 글이다.

■ 주요어: 민주화운동,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윤리적 분노, 저항하는 주체, 성찰과 모색

1. 5·18소설과 주체의 문제

20세기의 세계사에서 우리 사회처럼 인류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온 경우는 흔치 않다(안병욱 2007, 38). 그런데 1948년 제주에서의 4·3항쟁과 1960년 4·19혁명과 1979년

의 부마항쟁, 그리고 1980년의 광주항쟁, 이어서 1987년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항쟁(혹은 운동)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이 글은 민주화운동, 특히 5·18항쟁을 대상으로 한 문학텍스트에 재현된 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손호철은 5·18 당시의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들의 인적 구성을 계급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항쟁 참여자 중 노동자·농민·영세상인 등 기층민중이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 계층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 중 생산직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5·18은 ‘민중들이 주체가 된 민중항쟁’이라고 결론짓는다(손호철 1995, 175).

안병옥은 당시 광주시민들이 추구했던 의도와 목표 그리고 항쟁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항쟁, 곧 저항과 투쟁이라는 구도를 가지고는 올바른 평가와 적절한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광주시민전쟁’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안병옥 2007, 16-17).

이정로는 ‘무장봉기’라는 규정만이 광주 민중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명칭이라고 말한다(이정로 1989, 38).

박광주와 김성국은 특히 손호철의 민중항쟁론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박광주는 손호철이 사용하는 민중개념의 원천적 모호성을 문제 삼는다. 민중의 개념과 시민의 개념을 구분하고, 시민사회를 굳이 민중사회와 구분하려는 시도는 현대시민사회를 여전히 19세기형의 부르주아사회와 동일시하는 몰역사적 인식 태도라고 지적한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요소의 일부인 부르주아지 때문에 보수적인 반면, 부르주아지를 제외한 민중사회는 바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적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박광주 1997, 12).

김성국의 경우 박광주의 입론에 동의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는 5·18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적 역학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자유해방주의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하여 5·18의 민중주체론을 비판한다. 김성국은 기본적으로 근대 및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국가의 폭력 혹은 폭력으로서의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로 파악한다(김성국 2007, 215). 그는 ‘범시민주체론’을 주장하는데, 5·18의 경우 그것은 특정계급이나 기층민중의 이해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희구한 민주화, 즉 국가폭력의 거부와 시민사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5·18의 단초는 ‘시민사회(=민주화·민족주의)를 위한,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기방어에 의한 시민항쟁(김성국 2007, 247)’이었다고 규정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일부 논자들의 5·18에 대한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명칭 문제를 언급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이 글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5·18항쟁에서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 5·18의 성격 규명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성국의 ‘범시민주체론’에 동의하는 관점에서, 5·18을 대상으로 한 주요 문학작품들의 표상을 통하여 항쟁의 주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5·18을 ‘5·18항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것은 5·18에 있어 주체의 문제를, 민중을 포함한 모든 시민계층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18항쟁에 있어 특이한 점은 항쟁의 주체를 문제 삼는 기존 연구들이 어김없이 ‘지식인의 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무장 항쟁의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과 노동자, 특히 도시로뎀프를 레타리아 계층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항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점을 확인해주고

는 있으나, 문제는 그렇다면 항쟁을 전후한 시기에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물리적 동원력의 실체로서 민중계급의 참여가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도하고 추동하며 항쟁 이후 그것을 정치행위로서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지식인 계층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항담론으로서의 5·18 문학에서 여성의 누락/배제(심영의 2012, 159)와 함께 지식인 계층의 의도적 누락/배제는, 다시 말해 5·18항쟁을 제재로 한 대부분의 문학에서 항쟁의 주체(민중-노동자 계급)들이 거의 ‘윤리적 분노’라는 단일하면서도 경직된 성격으로서만 제시되고 있는 점은, 5·18항쟁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그 지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아닐까 한다. 즉 5·18항쟁의 경험과 기억이 소통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의 박제화된 기억으로 왜소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한다. 누가 그날 최후까지 총을 들고 항전했는가를 기준으로 항쟁의 주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국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한 상황에서 무장 항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려는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5·18항쟁의 의의를 왜소화하고 만다. 그것은 항쟁이든 운동이든 공유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생동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광주에 관한 한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과학에 갇혀 있지 않는가’를 뼈아프게 통찰(고은 1990, 248-249)할 필요는 여전한데, 그 까닭은 광주가 벌써 역사적 기념물로 화석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과 그것으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5월정신의 모색(계승)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기실 많은 5·18문학은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에 대해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집단적 강박일 수 있다. 도피하거나 모두 살아남기를 열망했

던 지식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으로 긍정할 수는 없을까.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재현의 양식이다. 당연하게도 이 ‘재현’이 현실 그대로의 모사-모방인 것은 아니다. 5·18항쟁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도르노는 이 재현-모방-미메시스의 개념을 ‘대상과의 동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개념적 인식이란 동일성 원리에 따라 대상의 비동일성과 차이를 억압하는 주체의 폭력적 동일화의 결과이다. 이에 반해서 재현-미메시스란 대상과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생산하는 능력으로서, 대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서 대상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신혜경 2009, 150). 문학의 언어는 무엇보다 정서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언어이다.

물론 재현 미학을 반대하는 아방가르드와 일부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고전적인 카타르시스 미학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는 가상, 즉 기만성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 그렇다면 5·18을 제재로 한 문학 텍스트는 어떠한가? 작가와 텍스트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사건과 기억 사이의 물리적 거리 때문이기도 하고, 작가의 세계관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에게는 기억의 과정들이 대부분 반사적으로 진행되고 심리적 기제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집단적·제도적인 영역에서는 이 과정들이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

5·18을 제재로 하는 문학 텍스트, 특히 소설은 시가 시대의 암흑을 뚫고 시대의 맨 앞에서 닫힌 심상을 열었던 것과는 달리 그로부터 몇 년을 두려움과 침묵 속에 묻어두어야 했다. 이는 소설 장르가 갖는 운명이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 충격적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고통과 죄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 시작하는 김준태의 시는 1980년 6월 2일 『전남매일신문』에 실려 광주의 참상을 비통에 젖어 노래했지만, 소설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84년에야 임철우가 「봄날」을, 윤정모가 1985년 「밤길」을, 황석영이 대표 집필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1985년에, 김종인이 1988년에 『무등산』을, 홍희담이 1988년에 「깃발」을 발표하게 된다. 2012년 현재까지 발표된 5·18소설은 중·단편과 장편을 모두 합해 대략 100여 편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홍희담 중편소설 「깃발」(1988), 문순태 장편소설 『그들의 새벽』(2000), 정찬 장편소설 『광야』(2002)와 류양선 장편소설 『이 사람은 누구인가』(1989), 임철우 장편소설 『봄날』(1997), 송기숙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2000)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위 텍스트들은 5·18소설의 계보에서 뚜렷한 문학적 성과와 문제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5·18항쟁에서의 주체의 문제,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텍스트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깃발」, 『그들의 새벽』, 『광야』의 경우 항쟁의 주체를 민중 계층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월의 미소』, 『봄날』의 경우에는 지식인 계층의 죄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각의 범주 내에 포함된 작품들 간에 보이는 차이점 역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의 5·18문학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5·18소설들에서 5·18항쟁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하겠다. 대체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라는 관점과 5월의 의미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기억의 현재적 의미와 관련하여 5월 문학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들로 분류가 가능하다.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5·18소설들을 살피고 있는 글로는 황정현의 「80년대 소설론: 중·단편을 중심으로」, 방민호의 「광주항쟁의 소설화」, 장세진의 「80년대 문학의 사회사적 의미」, 고은의 「광주 5월 민중항쟁 이후의 문학」 등을 꼽을 수 있다. 5월의 미학적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김태현의 「광주민중항쟁과 문학」, 이성욱의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김형중의 「『봄날』 이후」를 값진 성과라 할만하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현재적 의미와 관련하여 5월 문학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들로는 최원식의 「광주항쟁의 소설화」, 김명인의 「한국문학사에서 ‘5월 문학’은 가능한가?」, 윤지관의 「광주항쟁의 도덕적 의미」, 이성욱의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등이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5월 문화 전반을 검토한 연구 성과도 있는데, 특히 김양선의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 신지연의 「오월광주: 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 이경의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 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김옥란의 「5월을 재현하는 방식: 광주 지역 민속극을 중심으로」, 조혜영의 「항쟁의 기억 혹은 기억의 항쟁: 5·18의 영화적 재현과 매개로서의 여성」 등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2007년에 발행한 『여성문학연구』 제17권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본 연구자도 최근 「5·18소설의 여성재현 양상」(2012) 및 「민주화운동에서 여성주체의 문제: 홍성담과 공선옥의 5·18소설을 중심으로」(2012)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18항쟁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윤선자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다.

2. 항쟁 주체로서의 민중

1) 역사주체로서의 노동자: 「깃발」

5·18소설의 계보에서 홍희담 중편 소설 「깃발」(1988)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깃발」은 5·18항쟁을 그 비극적 양상 혹은 죄의식이라는 각도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의 양상에서, 그리고 혁명적 낙관이라는 각도에서 그린 소설이다(성민엽 2004, 191). 이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항쟁이 “71%의 무산자 계급에 의한 항쟁이었다는 점”의 강조에 있다. 도청 앞과 분수대 사이에서 여성노동자 ‘형자’는 ‘순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항쟁에 가담했고 투쟁했고 죽어갔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를 …… 그것은 곧 너희들의 힘이 될 거야(「깃발」, 63).

실제로 광주항쟁의 사망자 가운데 노동자들이나 도시빈민들이 대다수를 형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형자’의 존재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만은 없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 이른 새벽 여명을 헤치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순분이와 형자들의 묘사를 통해, 항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무산자계급의 연대감에 의한 전망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역시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에게 있어 항쟁은 피해자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의 체험이었고, 앞으로의 삶은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깃발」의 작품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논자는 이강은이다. 그는, 광주항쟁은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한 철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변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문학적 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이강은 2006, 176). 그는 단순한 사실의 복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적인 재해석에 의해서 광주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문학에 나타난 광주는 얼마든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고 역설한다.

허구와 사실의 구분이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허구가 가미되지 않은 자전(自傳)이란 없고 자전이 가미되지 않은 허구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구가 어떻게 객관적 실재의 사실성을 굴절 없이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창조적인 재해석을 통해 5·18소설이 광주의 진실을 충분히 포착해 낼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허구와 사실의 관계는 매우 중층적이어서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창조적인 재해석이야 문학의 본령이지만, 또한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재해석도 가능하지 않을 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의 왜곡’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깃발」의 시각이 5·18소설의 풍부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강은의 논지대로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광주가 재해석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문학이 아니라 프로파간다(propaganda)라는 일각의 비판에 속수무책 아닐 것인가.

텍스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그 말은 바흐친이 말한 바, ‘하나의 사회적인 형성이 또 다른 사회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렇다하여 이 ‘사회적 형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회가 예술의 소재를 제공한다거나 ‘예술은 이데올로기이다’라는 식의 설명인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작가라는 주체를 통해서 사회적 사실이

예술적으로 가공되고 변형될 때 독자들과의 역사적 담론적 공감의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 사회적 사실이 예술적으로 가공되고 변형될 때에도 사실의 왜곡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이 소설 「깃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 영순과 미숙, 그리고 철순과 그녀들을 가르치는 야학교사 윤강일과의 다음의 대화에서 보이는 지식인 계층에 대한 노동자의 부정적 시선이라 할 것이다. 항쟁이 진압된 후 수배를 피해 미숙의 자취방으로 숨어 들어온 윤강일은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가 텅 빈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철순은 “사람이 없다니요?” 하고 묻는다. 다시 윤강일의 대답, “글쎄, 쓸 만한 사람들은 감방에 들어갔거나 잠수함을 탔거나 죽었거나 했잖니?” 이에 대한 영순의 물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에 대한 윤강일의 대답, “상원이가 죽었잖아.” 그러자 순분의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죽음조차도 윤 선생님 쪽의 사람만 부상하는군요.”라는 발화는 결국 지식인을 바라보는 노동자 계층의 부정적 시선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항쟁을 전후하여 유폐된 지식인의 배반이라는 관점에 이 소설이 간혀 있다는 뜻일 것이고, 바로 이 점이 항쟁의 의미를 지나치게 노동자를 위시한 민중계층의 전유로 담아내고자 하는 조급증의 결과는 아닐 것인가 숙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역사는 집합적 개인이 만들어나간다면 했을 때, 이 집합적 개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조적 조건이라 할 것이고,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 의지를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이 강고할 때 그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인 때문이다(김호기 2012, 59).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이 집합적 주체가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집합적 의지는 실현되거나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의 경우 윤강일과 같은 지식

인 계층의 선택을 지나치게 편벽된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2) 이름 없는 민초: 『그들의 새벽』

문순태 장편소설 『그들의 새벽』(2000) 역시 1980년 5월 27일 새벽 최후까지 목숨을 걸고 전남도청을 지킨 300여 명의 무장시민군 대부분이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각성된 (여성)노동자의 당파성이라는 관점에서 5·18항쟁의 주체문제를 다룬 홍희담의 「깃발」과는 달리, 이념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이들이 목숨을 버린 까닭을 되짚으면서 광주에 실체를 더듬는다. 주인공 ‘기동’은 구두를 닦으면서 신문기자가 되려고 야학당에 다닌다. 시골 출신으로 가난했으나 성실했던 그는 짝사랑하던 호스티스 ‘미스 진’의 죽음을 목도하고 역사의 소용돌이로 뛰어든다. 그의 친구인 철가방, 구두찝새, 미용사 같은 야학당 학생들도 주변 사람들의 이유 없는 죽음에 분개해 총을 든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 떠나버린 도청을 지키다 최후를 맞는다.

이 소설의 초점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구두닦이 손기동과 술집 호스티스 미스 진, 그리고 그의 친구인 철가방, 구두찝새, 미용사 같은 뿌리 뽑힌 존재들에 놓인다. 그래서 전체 32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새벽』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그들만의 새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살아남은 이들의 윤리적 부채감을 따지는 것보다 ‘왜 그들이 총을 들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총을 든 이유는 …… 아니 우리 양아치들이 총을 든 것은 말하자면 …… 세상이 꼴보기 싫어서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

소?” (중략) “솔직히 아니꼽고 치사한 세상 확 뒤집어뿔고 자퍼서 ……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 발가락 때만큼도 안 여긴 놈들을 싹 쓸어 불고 자퍼서 ……” 그러면서 박순철은 시내 쪽으로 총부리를 들이대고 휘저어 보였다. 그때 그의 옆얼굴이 섬뜩할 정도로 두렵게 느껴졌다. “세상이 그 동안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소? 형씨는 덕본 것이 뭐가 있소? 으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해줬소?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을 하지 않았소?” (중략) (『그들의 새벽』 2권, 233-234)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박순철’의 발화는 그것 자체로는 모든 종류의 지배관계의 해소와 경제적으로 기초된 정의와 평등의 관계, 즉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깨달은 거는 현숙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며 우리들 모두의 죽음이라는 것이여”와 같은 기동의 말이 의미하는 바, 이 분노와 단순성과 무명성은 기실 시민들의 자발적 단결과 투쟁의 중추적 내포로 기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새벽』에서 강조하는 항쟁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이름 없는 민중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홍희담의 「깃발」의 ‘이데올로기화된 민중’과는 뚜렷한 변별점을 갖고 있다.

『그들의 새벽』에서 또 한 사람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박지수 목사의 성격은 중간자적인 면모로 그려진다. 박지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동네의 개척교회, 빛고을교회의 목사다. 그는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불우시설이나 직업여성들을 직접 찾아다닌다. 때문에 일요일 예배시간에 찾아와 자리를 메워 주는 신도들은 인근 주민들이 아니라, 시내에 살고 있는 술집 종업원들이나 구두닦이, 양아치, 교회와 연관이 없는 불우시설 수용자들 그리고 야학당 학생들이 고작이다. 박지

수 목사는 손기동과 미스 조와 월순이와 장영구 등의 뿌리 뽑힌 존재들과 야학의 강학인 대학생 박성도, 강미경 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항쟁의 막바지에 회색인의 태도를 보인다. 무기를 반납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박지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의 막다른 고비인 것 같네. 계엄군의 진입은 정해져 있는 수순인 것 같아. 오늘밤이 아니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지. 지난번에 계엄군이 도청을 빠져 나갈 때처럼 그들은 이번에도 그들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하게 될 것이 뻔하네. 많은 희생자가 나오겠지. 그리고 도청에 남아서 저항을 하는 사람은 살려 두지 않을 걸세. 그러니 총을 들었거나 들지 않았거나 도청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강미경 선생 이야기대로 도청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일세(『그들의 새벽』 2권, 241-242쪽).

그러니까 문순태는 이 소설에서 5·18항쟁의 진정한 주체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민초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역사에서 복원시키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민초는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민중이 아니다. 다만 이 소설에서 구두담이 등과 같은 기층민중, 뿌리 뽑힌 자들의 무장저항이 윤리적 분노와 공통체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은 그것 자체로는 올바른 관찰이지만 그것만으로 왜 그들이 총을 들었는가를 다 해명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5·18항쟁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은 매우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일대 사건인 때문이다.

3) 혁명가가 부재한 혁명: 『광야』

정찬의 『광야』(2002)는 광주공동체의 실체와 그것의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구명(究明)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가 『광야』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절대는 일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 꿈이 삶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니까 작가는 오월의 역사적 위상을 진보사관에 입각하여 맥락화하는 대신에 죽음과 삶이라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오월에 끌어들여 그것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오월에 대한 거리두기와 그럼으로써 획득되는 오월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으로(임철우와 문순태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것의 전모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

『광야』는 광주에서의 열흘을 선조적으로 서술하면서 주요 등장인물의 내면을 읽는다. 사료적 자료는 충실히, 그러나 엄정한 실증주의적 태도로 활용한다. 그는 우선 누가, 어떤 계기로 항쟁에 참여했는가를 바라본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4시, 이미 금남로에서는 공수 대원의 진압 봉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시민들은 길 군데군데 흥건히 고인 핏물을 보며 치를 떤다.” 그들의 구성은, 학생들은 소수였고 자유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낙네들은 물론이고 중년층과 노년층들도 꽤 눈에 띄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은 전두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트럭을 몰고 계엄군들에게 질주하는 공장 노동자 김선옥은 휘발유 드럼통에서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공장에서 일하다 몸이 망가져 투병하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작 열여섯 밖에 안 되는 어린 여동생을 기억한다. 그래서 저들이 학살의 대상으로 광주를 택한 것에 대해 차라리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장주가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레스의 안전장치를 뜯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노동자를 자신들과 다른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광주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광주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의 권력 장악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는 관점을 보이는데, 공장 노동자인 김선우의 시각을 빈 것은 그 둘의 본질적인 연관 관계에서는 적절한 해석으로 생각되지만, 채 각성에 이르지 못한 노동자의 눈으로는 또한 너무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 소설에서 작가의 통찰은 여러 군데서 빛나고 있는데, 신군부의 발포 목적에 대해, “그것은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이후 무장 해제(무기 회수)와 관련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국면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진술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적이 눈앞에 있으면 광주공동체는 붕괴되지 않는다. 붕괴는 분열을 전제로 한다. 광주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축제의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로 무서운 시간이 온다. 참여자와 비참여자, 강경파와 온건파, 학생과 비학생,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 . 분열의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분열의 능력에는 천부적이다. 혁명군은 혁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분열된다. 인류사에서 이것을 극복한 집단은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순수한 시간, 꿈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깊어지고 있는 존재의 조건이자 운명이다(『광야』 2002, 79).

이는 또한 1980년 5월이 끝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정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결국 아무도 ‘너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았던 광주공동체가 곧 ‘우리의 시간’이었다면 해방 광주는 ‘나의 시간’이 되어

서 그리하여 모두가 우리였고 전사였던 광주공동체에서 시민군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탄생함으로써 “비무장 시민들은 전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한 계엄군이 도청에서 퇴각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다음의 지적들이 그러하다.

그것은 혁명가가 존재하지 않은 혁명이었으며, 죽음을 넘어서신 이들만이 맞볼 수 있는 승리의 열매였다. 그 해방의 땅이 2만여 명의 병력에 둘러싸인 절해고도의 도시임을 아는 이는 (그러나)아무도 없었다(『광야』 2002, 89).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시민군이 혁명과 반란의 도시를 지킬 수 없음을. 그들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다(『광야』 2002, 91).

그래서 왜 그들이 총을 들었는가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윤리적 분노’였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 왜 그들이 무장 저항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른다. 답은 자명하다. 곧, 무장 해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일상 생활에서 계급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던 무장 시민군들이 추구하는 것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꿈의 세계요, 수습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로의 회귀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 일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 꿈이 삶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철우 소설 『봄날』과 문순태 소설 『그들의 새벽』에서 비판적으로 그려지는 학생수습위원회위원장 김창길을 “진지하고 성실했다”고 평가한다. 봉기가 확산될수록 학생들은 그 수가 줄어들면서 시위대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것을 작가는, “신념과 열정이 봉기의 발화점은 되었을지언정

붕기 확산의 원동력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스레 왜 학생들을 비롯한 지식인 계급이 결정적인 순간에 광주에 없었는지를 해명한다. “경악과 분노 속에서 대책을 논의한 그들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피신이었다.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빨리 피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차량 시위대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게 한 것이 ‘분노’였음을 확인한다. 그러한 윤리적 분노의 수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광주의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을 등장인물, 대학생이면서 노동운동가인 박태민을 통해 깨닫는다.

결국 영민한 통찰 뒤의 어딘가에 역사적 허무주의가 파리를 틀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이 소설 『광야』의 작가가 자유롭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역사적 허무주의를 부추기기에 알맞을 만큼 거의 모든 인간적 선의와 혁명적 기획들이 왜곡되거나 압살당한 결과들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한 역사적 투쟁과 그 좌절에서 초래된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불일치와 괴리는 체계적이고 단선적인 역사 이해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곧잘 선택되는 신화적 공간이나 존재의 탐구라는 형식으로는 5·18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디까지나 주체로 기능했던 이들의 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규정하기는 버거운 일이다. 아니 작가는 처음부터 절대적 신념(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니, 문제는 그렇다면 그때 충을 들었던, 그리고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죽었던 사람들은, 곧 ‘악’에 대한 절대적 확신(증오)을 가졌던 사람들은, 고귀하되 위험하고 허약한, 따라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문학 담론에서 작가마다 나름대로의 생산 규칙이 있음을 인정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작가가 사회의 언어 체계를 초과하거

나 사회의 가치 체계와 무관한 상태에서 작품을 생산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든지 간에 작품은 시대적 산물인 것이다.

3. 지식인의 죄의식과 머뭇거림

1) 지식인의 자기분열과 고통: 『이 사람은 누구인가』

류양선 장편소설 『이 사람은 누구인가』(1989)는 광주에서의 열흘을 인간의 도덕적 삶의 문제와 관련시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홍희담 소설 「깃발」이 무산자 계급에 의한 민주항쟁의 차원에서 노동자 계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해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죄의식과 자기 분열의 고통에 시달리는 지식인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소설은 광주의 참상을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광주의 싸움은 인간 내면의 정신적·윤리적 싸움으로 재현된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80년 5월에서 6월에 걸친 한 달 정도의 기간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각각 부산·광주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이들로 대학 강사(영섭), 정신과 의사(성준), 예술가(한빈), 시인(원규)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지식인들이다. 이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고통스런 죄의식에 짓눌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 표현의 형식은 달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들은 양심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는 오월 광주로 표상되는 당시의 폭압적 정치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었다. 허지만 아무리 믿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완전히 부정했던 엄연한 사실이었다. (중략) 그 팽팽했던 긴장과 엄청났던 열기, 죽임과 죽음, 전신을 옥죄어 오던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공포의 극복,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건 싸움,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 …… (『이 사람은 누구인가』, 82).

또, “어떻게 모든 것이 그대로일 수가 있는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바람은 그냥 서늘히 불고 밤은 조용히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우주가 이대로 침묵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비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제1장의 초점인물인 ‘영섭’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거대한 침묵이 학교를 뒤덮어 버린 것이었다. 그 침묵은 내게 있어서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나는 죄수처럼 방구석에만 웅크리고 앉아 지루하고 답답한 나날을 흘려보냈다. 사실 나는 죄수인지도 몰랐다.”

그가 겪고 있는 우울증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다른 인물들에게도 나타나는데, 한빈은 멀쩡한 다리가 잘려 나갔다는 병적 징후를 보이고, 원규는 까닭 모를 절망감으로 자포자기하며, 수찬은 모든 일이 부질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며, 성준은 생각을 멈추고 멍멍한 상태로 있고 싶어 한다. 세빈은 두통과 환영과 환청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죄의식과 무력감이 이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를 이루고 있다.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기나 명상 혹은 독백의 형태로 변형되어 제시되는 인물들 간의 대화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영혼들의 정신적 구원을 얻으려는 지적 노력을 말해준다. 이들의 힘겹고 고통스러운 노력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5·18민중항쟁의 의미에 대한 모색인데, 광주는 이 소설에

서 전해지는 이야기나 회고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등장인물들의 의식은 광주에 의해 온통 지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소설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각각은 영섭, 원규, 성준 등 주요 인물들의 1인칭 시각에 의해 서술되지만, 주인공 ‘한빈’의 환청 상태를 나타내는 유령의 시각이나 혹은 3인칭 서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3인칭 서술자(화자)도 문법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1인칭이다. 이러한 다양한 서술들은 모두 한 가지 사건, 즉 한빈의 실종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실종은 바로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한빈의 기이한 행각에 대한 일련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줄거리의 내면에는 한빈의 죄의식과 속죄를 통한 구원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질문들이 놓여 있는 셈이다. 한빈의 고통스런 행각과 죄의식은, 그가 사랑을 느꼈던 성욱이 그때 광주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졌다는 것,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는 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또한 “스스로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한빈의 정신적 질병이야말로 당시의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앓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요, 죄의식임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김태현 1991, 363).

조각가 한빈은 1980년 봄 무렵, 일종의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한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 한 쌍의 목발을 만든다. 그는 5월 말경 부산의 대학에 근무하는 친구 영섭에게, “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그만 불구자가 되고 말았네. 어서 와서 나를 구해 주게. 난 지금 쓰러지고 싶네. 난 지금 울고 있네. 난 지금 울고 있는 나를 구타하고 있네 ….” 라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보낸 후 시인 원규의 하숙을 찾아갔다가 다음날 홀연히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는 그 길로 광주에 내려가 환청 상태에서 광주를 떠도

는 유명들을 만나고 그곳에 머물고 있던 정신과 의사 성준을 방문한다. 그가 만난 유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 산 자들이야,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를 죽인 자들도 방금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어둠 속에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략)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그들, 굶주림을 못 이겨 발광했던 그들, 자신들이 그토록 빨리 무너질 줄 몰랐던 그들을 이 죽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을 책하고 벌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체 그냥 덮어둘 것인가? 하지만 이건 다 부질없는 질문이다. 삶의 세계에서와는 달리 죽음의 세계는 평등하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대체 이곳에서 누가 죄인일 수 있는가?(『이 사람은 누구인가』, 167-168)

② 그러나 산 자들이야, 그대들은 어떠한가? 그대들 중의 우리와 그대들 중의 저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삶의 세계에서도 저들을 과연 ‘우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들은 정말 뻔뻔스럽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체한다. (중략) 저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자면서 이제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리하여 옛날처럼 즐겁게 아니 옛날보다 더 즐겁게 같이 어울려 뛰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일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 둘 수는 없다(『이 사람은 누구인가』, 168-170).

①은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사람들 역시 그날의 고통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수치스러움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화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②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자면서, 이제

그만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거짓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이들과 그로부터 역사에의 망각을 억압하는 이들과의 결연한 싸움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빈은 “차라리 미쳐버릴지언정 세상을 비껴가지 말고 세상에 맞서 격렬히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광주를 떠나 땅 끝 토말리를 찾아 종이조각가 봉한을 만나고 자신의 목발 중 하나를 그곳에 남겨둔 채 다시 길을 돌아 나선다.

한편 영섭은 친구인 한빈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 나선다. 그는 부산에서 상경하여 원규, 수찬, 세빈, 인숙 등 한빈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그의 행적을 좇아 광주로 내려간다. 결국 그는 토말리까지 추적하여, 한빈이 회귀한 그 지점에 서서 자기 자신도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인식한다. 이 실종과 추적이라는 소설의 기본 구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한빈의 여행이 갖고 있는 상징적·내면적 의미일 것이다. 한빈의 행적은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도의 길에 나선 한 순례자의 고행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 여행의 핵심에 광주가 놓여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여행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죄의식의 근원이 일차적으로는 광주에서의 성육의 죽음과 관련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윤리적 삶과 예술적 활동이 결코 정치적 사건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소설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윤지관 1989, 294). 등장인물 대부분은 예술가 또는 지식인이다. 한빈과 수찬, 그리고 봉한은 조각가이고, 원규는 시인이며, 세빈은 소설을 습작한다. 영섭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성준은 정신과 의사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의 인물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타락

한 세계에서 예술이 설 자리를 찾으려 한다. 이 소설 곳곳에서 예술론 내지 문학론이 피력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빈은 곧 녹아 없어질 얼음조각에 몰두하다 드디어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목발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그의 목발은 병든 세월 혹은 불구적인 세상을 상징한다. 수찬에게는 작품의 제작이 다 쓸모없고 부질없어 보이며, 원규는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한다. 세빈도 쓰고 있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빈의 실종은 곧바로 예술의 위기를 의미하며, 한빈의 모색은 예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읽힌다. 왜냐하면 한빈에게 있어서 예술은 혼신의 힘을 바쳐야 하는 그 무엇, 곧 그의 자체이기 때문이다. 1980년 광주로 표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폭압은 한빈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고 그것은 곧바로 예술 작업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의 전언은 그러니까 예술가의 삶이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삶과 긴밀한 관계망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의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의의라 할 것인데, 5·18민중항쟁을 다룬 거의 모든 소설이 지식인의 배반을 논하고 있거니와, 이 소설의 경우 그 사건이 지식인과 예술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김태현 1991, 362).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체(An-sich)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루카치가 말한 바, 성향, 재능 등은 태생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 형성되느냐 파멸되느냐 하는 것은 삶과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작가의 교호관계에 달려 있다. 이 삶이란 객관적이며 당시의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삶은 그 본질로서 사회적-역사적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한빈을 추적하던 영섭이 마침내 땅끝 마을에 이르러 목격한 남루를 걸친 구도자의 조각은, 그러므로 목발 한쪽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삶

을 시작하려는 조각가 한빈의 모습일 뿐 아니라 이 광기와 야만의 시대에 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살아남은 자 우리 모두의 초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주요 인물들은 사르트르적 의미의 지식인, 곧 지식인은 자기 고유의 모순이 결국 객관적 모순의 특수한 표현임을 깨닫고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이러한 모순과 싸우는 모든 인간에게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다(사르트르 1979, 42). 결국 이 소설의 인물들은 「타자로서 자기 자신」에서 리콥르가 강조하듯이 어떠한 단계(혹은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의 타자와 분리되는 않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김선하 2007, 36).

2) 중도적 지식인의 머뭇거림: 『오월의 미소』

송기숙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2000)는 광주를 경험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통합한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등장인물군의 설정과 서사의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이다.

소설에서의 인물이 사회 모순과의 대면에서 주체적 내면을 갖는 것은 그 모순을 넘어서는 사회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그 인물이 반드시 고양된 진보적 의식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사회 현실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세계사적 개인보다는 오히려 주저주저하는 중간 정도의 의식을 지닌 인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도적 주인공은 사회 모순에 맞선 주체적 내면을 지니면서도 항상 머뭇거리는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 속한 인물로서 현실 모순에 비판의식을 지니면서도 자본주의적 체계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월의 미소』는 이러한 중도적 주인공로 ‘정찬우’를 내세운다. 정찬우는 항쟁에 참여하다 계엄군에 체포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집 한 채를 판 돈으로 어렵사리 사지(死地)에서 구해낸 다음”에 서울로 내쫓김을 당한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 재수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를 투쟁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인물을 통해, 그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오월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광주와 소안도는 서사가 진행되는 주된 무대인데, 소안도는 이 소설의 비극적 인물 김영선의 고향이며, 그녀가 몸을 던져 한 많은 생을 마감하는 공간이며, 공수부대원이었던 김성보가 낚시를 가서 사고로 죽는 공간이다. 소안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서 일제에 항거했던 섬사람들과 공수부대원들을 내려 보낸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을 동일 이미지로, 일제와 신군부가 역시 일치하는 세력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일제에 항거했던 것이 정당했던 것처럼, 신군부에 항거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작가의 의도가 구현된 서사의 공간인 것이다. 그것은 또 소안도 앞바다에서 김영선과 김성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혼결혼식이 가능하도록 배치한 공간으로 잘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은 크게 세 가지의 서사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세모눈’과 ‘김중만’ 등 5·18 때 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상금’ 이후의 광주의 모습에 대하여 “거세계 고개를 짓는” 지점이 하나 있다. 오월의 의미가 왜곡되고 퇴색된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과 관련한 여러 스캔들, 오월 단체들의 이익단체화 과정과 관련한 추문들과의 관련도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인

데, 우회적으로나마 이 소설은 우리들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의 미션이 그랬던 것처럼 항쟁 기간 중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십칠 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들의 현실적 삶이 보상금으로 하여 ‘형편이 나아진 것’은 어찌되었던 다행인데, 이 소설이 그것까지를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의 재현은 어떻게 도덕적 행위가 되는가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유용하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지적 자체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기실 그날에 살아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만과 왜곡의 그림자를 뚫고 들어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첫 단계가 아닐 것인가(노암 촘스키 2005, 178).

학살 책임자 처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찬우 등은 자신들을 쫓아 수사망을 좁혀 오는 안지춘 형사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권총을 구입해 사격을 연습하고 ‘그 날’을 기약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학살자들에 대한 복수에의 결의, 그리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의 일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5·18소설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날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권력자의 측근이었던 ‘하치호’의 암살을 시도한 사람은 식료품 가게 종업원 ‘김중만’이었다.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처벌한 이가 평범한 택시기사 박기서였듯이, 일을 도모하고 기획한 것은 정찬우 등 지식인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민중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1980년 당시 가해자의 일원이었던 공수부대 장교 ‘김성보’와 공수부대원들에게 윤간을 당해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정신병원을 드나들다 결국 자살하고 마는 피해자 ‘김영선’과의 영혼결혼식을 통

한 화해와 상생의 실천적 제시다. 이에 이르는 방법이 물론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장치가 준비된다.

① 나는 술잔을 들고 있는 김성보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저 평범한 김가박가였다. 학교 선생이라면 선생이고, 동장이나 구청장이라면 또 그런 사람이었다(『오월의 미소』, 49).

② 잘 가세요. 나도 김 이사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도 광주 사람 누구 못지않은 피해자였습니다. 잘 가세요. 광주항쟁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고 그 슬한 사람들 원한도 제대로 씻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말테니 지하에서 지켜봐주세요(『오월의 미소』, 278).

③ 그 큰애기가 공수단한테 다쳤다고 하제미는 저이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밤 잔 은혜 없고 날 샌 원수 없더라고 이십 년 가까이 되었는데 세월도 흘러갈 만큼 흘러갔고(『오월의 미소』, 286).

④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멧힌 것이 있으면 풀어사제라(『오월의 미소』, 299).

①은 소안도로 함께 낚시를 가게 된 상황에서 ‘나(정찬우)’가 김성보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인 것이고, ②는 김성보가 낚시 중 사고로 죽은 소안도 바다에 국화를 던지며 그 혼에게 건네는 ‘나(정찬우)’의 위로의 말이고, ③은 고향 앞 바다(소안도)에 몸을 던져 죽은 영선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판에서 동네 사람 김윤달의 말이며, ④는 미선이의 친척 아주

머니에게 차관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다. 차관호의 어머니는 지금 김영선과 김성보의 영혼결혼식을 주선하고 있는 참이다.

이 소설은 우선 김성보로 대표되는 오월 그 날의 가해자들 역시 “똑같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광주의 오월을 직접 체험한 작가들의 발언일수록, 그 살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문학적 추구를 계속해왔던 작가들일수록 그 도덕적 설득력은 배가 된다. 송기숙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이 소설에서 김성보와 같은 가해자들의 참회는 임철우 소설 『봄날』에 나오는 계엄군 ‘명치’의 참회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

광기의 인간 사냥이 한참 끝난 뒤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시민들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봄날』의 ‘명치’가 깨달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팔십만의 시민과 이만의 병사들은 결국 같은 그물 속에 갇힌 포획당한 물고기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저항하는 자만이 아니라 진압하는 자의 시점에서든 광주학살은 추악한 범죄라는 것을 치절하게 깨달을 때, 그 때 우리는 도리 없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라는 작가의 관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오월의 미소』에서도 몇 가지 장치를 통해, 예컨대 정찬우 등이 권총을 구입해 사격을 연습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환기시킨다. 또 백범 살해범 안두희를 박기서가 처치한 기사와 관련하여 작중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언급하면서 “화해 앞에는 진실을 내세우고”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그날의 진실, 곧 왜 하필 광주였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죄 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살해했는지? 발표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역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날』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들의 진정한 참회가, 그들

의 고통이 이 소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김성보로 대표되는 오월 그날의 가해자들 역시 ‘똑같은 피해자’라는 인식에 필자는 선험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영선과 김성보의 영혼결혼식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길의 모색에 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심리적 거부감을 갖게 된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맺힌 것은 풀어야 ……”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풀림의 방법이 용서라는 환상으로 깊은 분노를 우회해 가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선 김영선이 겪은 고통과 그 후유증이 그녀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오랜 세월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선은 그 때 공수대원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아이(김준일)를 낳는데, 결국 스스로 죽어서야 그 원한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미선은 십칠 년 동안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언니 병수발을 하느라 청춘을 저당 잡힌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필경 미선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정찬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을 하고, 결국 서둘렀던 결혼은 삼 년 만에 파경을 맞는다. 사귀던 강지연과도 영선의 죽음과 함께 헤어지게 된다. 그것이 강지연의 말처럼,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기엔 그들이 묶여 있던 역사의 상처가 지나치게 무겁다.

작가는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과 함께 김영선이 낳은 아이가 죽은 김성보를 대신하여 그의 모친 고성택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화해와 상생의 대미를 장식한다. 영선이 이 아이를 낳게 버려둔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있을 터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씻김굿과 영혼결혼식이라는 무속적 의례를 통해서 그 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는 일종의 평형 상태, 즉 모든 정열이 다 소모된 마음의 평정 상태에 접근한 지점에서 『오월의 미소』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그 날

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 세월이 지나지 않았고, “밤 잔 은혜 없고 날 샌 원수 없더라고 이십년 가까이 되었은게 세월도 흘러갈 만큼 흘러갔고”라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혐오든 사랑이든 외상을 몰아낼 수는 없다.

물론 송기숙의 소설 세계는 불화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있는 세계이며(소설은 마땅히 그러한 세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소설 공간에 증오와 원한을 담으려고 의도하지 않음을 『오월의 미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5·18을 제재로 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를 논하면서 송기숙의 이 작품을 포함한 것은 다음과 같은 까닭 때문이다. 곧 당시 권력자의 측근이었던 ‘하치호’의 암살을 시도한 사람은 식료품 가게 종업원 ‘김중만’이었다는 것,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처벌한 이가 평범한 택시기사 박기서였듯이, 일을 도모하고 기획한 것은 정찬우 등 지식인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민중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중도적 지식인의 ‘머뭇거림’이라는 특성 내지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때문이다.

3)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기쁨: 『봄날』

임철우 장편소설 『봄날』(1997) 다섯 권은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86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다양한 시점으로 5·18항쟁의 진실을 묻고 있다. 여기에서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누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이해하고, 욕망하고, 기억하고, 꿈꾸는가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소설의 중심적 인물은 한원구와 그의 세 아들(무석, 명치, 명기)

인데, ‘무석’은 일반 시민을, ‘명치’는 계엄군을, ‘명기’는 대학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뒷부분에서는 정베드로 신부와 항쟁 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윤상현과 외부 관찰자인 K일보의 광주 주재 기자 김상섭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한명기는 작가 자신의 이력과 많이 일치하는 인물로서 작가 임철우의 시각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김상섭 기자는 이 비극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로서 이 소설쓰기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외부 현실을 바라보는 ‘무석’의 시점은 기본적인 제한이 있다. 그 말은 오월 광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만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무석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무석의 시점으로 오월 광주는 불가해한 공포의 경험일 뿐인 것이다. 무석의 시점은 오월 광주와 만날 때 매번 분노와 공포의 심리를 유발한다. 그것은 한편 항쟁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하다. 아버지 원구에게서 뛰쳐나온 무석은 시내에서도 가장 번두리에 속하는 광천동의 콘크리트 골조에 적벽돌로 벽면을 붙여 쌓아놓은 사층짜리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건물은 모두 세 동인데 백오십여 세대가 저마다 똑같이 다섯 평이 채 못 되는 공간 하나씩을 차지한 채 개미굴처럼 모여들어 살아가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미순과 은숙들과 함께 무석은 오월 광주의 민중성을 상징하는 것도 사실이다. 항쟁의 진정한 주제가 그들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계엄군으로 광주에 파견된 ‘명치’의 시점이야말로 광주의 진실이란 추악한 범죄, 국가 폭력임을 여실히 증언한다. 이 추악한 범죄의 주체는 문명사회가 수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낸 야만이자 악마인 공수부대와 그들의 지휘자들이다(최정운 1999, 126). 그런데 그들이 왜 짐승과 다름없었는지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치’는 결국 시민들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팔십만

의 시민과 이만의 병사들은 결국 같은 그물 속에 갇힌 포획당한 물고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항하는 자만이 아니라 진압하는 자의 시점에서조차 광주학살은 추악한 범죄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또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전율할 폭력의 절정에 있는 인물인 추 상사의 가학성은 인간 본성의 한 극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을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그러한 죄의식 없는 극단적 폭력은 군대라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이 되고 만다.

금남로 일대는 완전한 사냥터였다. 광기에 눈이 뒤집힌 채 피를 찾아 쫓고 몰아대는 짐승의 사냥터였다(『봄날』 2권, 135).

계엄군으로 광주에 파견된 명치의 시점은 『봄날』에서 제시된 서사적 시야의 발원 지점이 어디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위치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설에서 대학생 명기의 시점은 죄의식의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명기는 그날 밤, 도청이 함락되기 직전에 YWCA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그날 밤 도청 쪽에서는 항쟁지도부의 간부들 대부분이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다. 명기를 휘감고 있는 죄의식의 내용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겁에 질려 도망쳐 나온 그 자리를 그들만이 외롭게 지키다가, 그렇게 홀로, 외롭게 죽어갔구나 …… 아아, 나는 비겁하게 도망쳐 나왔어(『봄날』 5권, 435).

윤상현의 시점은 어떠한가.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그는 지식인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정서가 두루 통합되

는 대표적 인물로 기능한다. 특히 윤상현의 시점이 광주의 본질과 진실의 복합적인 측면을 아주 적절하게,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윤상현은 말없이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먹물 같은 어둠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뿐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윤상현은 저 열흘 동안의 뜨거운 마음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한 덩어리로 격렬하게 끓어 넘치며 밀물처럼 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던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을 저마다 가슴 속에 간직한, 한겨울 보리씨마냥 작고도 지순한 인간에의 불꽃, 자유와 정의와 생명을 향한 그리움의 불꽃들을. 그리고 그 작은 불꽃들 하나가 모여 수백 수천 수만의 불기둥이 되고, 마침내 거대한 불의 강을 이루며 뜨겁게 굽이쳐 흘러가는, 그 찬란한 인간의 신화를, 그리움과 희망의 신화를(『봄날』 5권, 401).

위의 인용은 윤상현의 독백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광주 시민들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못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해방공동체의 역사적 실현을 묘사한 부분이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그로 인한 기쁨을 그리고 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지식인이란, 자기 내부와 사회 속에서 구체적 진실에 대한 탐구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사르트르 1979, 34). 이어서 그는, 분열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인은 그가 그 사회의 분열된 모습을 내면화한 까닭에 그가 그 사회를 증거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 산물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윤상현은 5·18항쟁 당시의 집단화된 개인의 전형적인 성격—‘저항하는 주체적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로 기능한다. 다시 사르트르의 말을 인

용하면, 지식인의 목적은 실천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떠받쳐 줄 수 있는 사회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는 윤상현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상섭 기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수습위원 중의 한 사람인 정 베드로 신부에게 어김없이 해당되는 설명이다.

5·18항쟁 이후 교수, 신부, 목사, 변호사,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계엄사령부와의 협상 및 무기회수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섰던 수습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싸고 투항주의, 타협주의 등의 비난이 가해졌다. 그러나 ‘죽음의 행진’을 감행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계엄군에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탱크로 깔아뭉개든지 알아서 하라”며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이들을 투항주의자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객관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 광주시민의 일반적인 의사를 대변한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김성국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소설 『봄날』에서 살핀 바, 항쟁 마지막 날 도청에서 산화한 윤상현과 살아 남은 정 베드로 신부로 대변되는 항전파와 협상파가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보아도 분명하다.

루카치와 골드만, 그리고 아도르노의 경우 문학에 대한 얼마간의 상이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문학 작품이란, 사회적·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진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특히 골드만은 철학·예술·종교 등의 어떠한 문화적 영역도 전체라는 구조 속에서 의미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구조와 소설구조 사이에는 발생론적으로 그 구조가 동일(혹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골드만은 작가 개인의 감수성이나 전기적 사실들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작품의 통일성을 심층적으로 규정짓는 의미 구조를 밝혀줄 수 있는 구조는 개인적인 층위가 아니라 집단적 층위에 자리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작품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포괄적인 구조를 형성하기에는 개인의 삶은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들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연구에 있어서 집단의식의 도입은 필연적인데, 그 집단의식의 특징적 요소들이 극대화된 형태를 갖춘 것을 골드만은 세계관이라고 명명한다. 이 세계관은 사회 집단을 토대로 형성되며, 이 세계관이 곧 한 작품의 의미 구조가 끼워져서 설명될 수 있는 포괄적인 구조를 제공한다(홍성호 1995, 50-51). 앞에서 살펴본 『그들의 새벽』의 작가 문순태와 『광야』의 작가 정찬의 경우가 그러한 세계관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

4.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

개인 혹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누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누가 그것의 행위 주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성립된다. ‘누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한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된 역사는 행위의 주체를 말한다(김선하 2007, 138). 앞에서 살펴보았던, 5·18항쟁을 대상으로 한 문학텍스트들에서 항쟁의 주체는 우선 룸펜프롤레타리아를 비롯한 민중계급이다.

홍희담 증편소설 「깃발」에서는 무엇보다 각성된 여성노동자들이 항쟁의 주체로 설정된다. 이 소설에서 방직공장 노동자들인 여성인물들은 지식인에 대해 본능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야학 교사였던 윤강일이 항쟁의 현장을 떠나 도피한 데 따른 배신감이 더해진다. 그들은 말한다. “분수대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야. YWCA는 언제든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도청은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의 것이야.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지(「깃발」, 49).” 그러나 이 소설은 민중계층의 그 당위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 소설의 발표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인데,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학적 민중담론이 이 소설의 주제 및 인물 표상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순태 장편소설 『그들의 새벽』에서도 윤리적 분노의 주체, 곧 항쟁의 주동적 참여자는 구두담이나 중국집 배달원과 같은 기층 민중으로 설정된다. 여기서의 민중은 「깃발」에서와 달리 이념에 포박되지 않은 순수한 민초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박지수 목사가 항쟁 마지막 밤 이전에 도청을 떠나는 회색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 소설의 경우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민초들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과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항쟁에서의 민중주체 담론은 결코 5·18항쟁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한다.

정찬 장편소설 『광야』의 경우 항쟁 참여자들에 대해, “그들 대부분은 전두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이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작가는, “신념과 열정이 봉기의 발화점은 되었을지언정 봉기 확산의 원동력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스레 왜 학생들을 비롯한 지식인 계급이 결정적인 순간에 광주에 없었는지를 해명한다. “경악과 분노 속에서 대책을 논의한 그들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피신이었다.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빨리 피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5·18항쟁의 전개과정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화를 외치고,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를 붙여,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은 기층 민중이므로 5·18의 주체는 민중이고 따라서 5·18은 민중항쟁이라는 주장은 오직 운동의 전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혹은 어떤 단정적 논리에 입각하여 특정 집단의 역사적 변혁주체론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광주사람들은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국가의 비인간적 폭력에 저항한 시민항쟁(김성국, 247)”이라는 규정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제는 여전히 항쟁에서의 지식인의 존재이다. 살펴보았듯이 「깃발」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들의 새벽』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된다. 『광야』의 경우에는 민중이든 지식인이든 항쟁에 참여한 이들은 윤리적 분노라는 단순성에 매몰되었다는 것, 저항이란 오히려 신군부의 선택에 의한 결과일 뿐이어서 주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인다.

임철우 장편소설 『봄날』의 경우에는 민중과 계엄군과 지식인 등 다양한 인물의 시각으로 5·18항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대학생인 명기는 그날 밤, 도청이 함락되기 직전에 YWCA를 빠져나왔던 탓에 그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 포박당해 있다. 등장인물 모두가 지식인으로 설정된 류양선 장편소설 『이 사람은 누구인가』의 인물들의 경우 이 살아남음에 대한 죄의식에서 오는 자기분열과 고통은 형벌에 가깝다. 송기숙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의 경우에도, 일을 도모하고 기획한 것은 정찬우 등 지식인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민중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문학 텍스트들에서 민중계급은 투쟁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데 반해, 지식인은 대체로 항쟁의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묘사된다. 항쟁의 발단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었으나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무장 항쟁의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몸을 피해 숨거나, 아니라도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을 뿐이다. 결사항전이나 무기회수를 통한 수습이냐의 대치국면에서 민중계급은 당연하게도 죽음을 불사한 항전을, 교수나 목사나 신부나 변호사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은 현실과의 타협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항쟁에서 지식인들은 단적으로 말해 무용한 존재인가? 누가 그날 최후까지 총을 들고 항전했는가를 기준으로 항쟁의 주체를 문제삼는 것은, 자국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한 상황에서 무장 항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려는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5·18항쟁의 의의를 왜소화하고 만다. 정찬이 이미 그의 소설 『광야』에서 간파했듯이, 모두가 우리였고 전사였던 광주공동체에서 시민군과 비무장 시민들, 민중과 지식인들로 분열함으로써 항쟁 이후 5·18정신의 전국화라든가 세계화는 그저 공소한 구호로만 남겨지고 말았다. 문학 담론 역시 1980년 5월에 간혀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문학에 있어서 민중담론이 가져온 폐해라 할 것인데, 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다양하게 열려 있는 문학담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문학적 조명까지를 포함할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언명 곧, 지식인은 자신의 온 몸을 비판적 감각에 내거는 존재, 즉 손쉬운 공식이나 미리 만들어진 진부한 생각들 혹은 권력이나 관습이 으레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감각에 실존을 거는 존재(에드워드 사이드 2012, 36)라

는 인식이 5·18소설들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다.

수습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오월의 미소』의 작가 송기숙 교수는, “시민들 눈에 교수들이 학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시위를 한 것으로 비친 이 사건은(5월 14일의 교수와 학생들의 금남로 시위 및 5월 16일의 평화적 햇볕 시위) 광주시민들의 시국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 사건은 그 뒤 많은 시민들이 5·18항쟁에 적극 참여하는 견인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송기숙 1990, 155). 이렇듯 운동은 공유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생동할 수 있었다(노서경 2001, 94).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타자에 대한 책임은 타자의 요청에 의해 내가 타자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베른하르트 타우렉 2004, 236-238). 그에 따르면 휴머니즘의 근원은 타자이며, 이런 휴머니즘 안에서의 책임이 나의 유일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은의 말처럼(고은 2006, 315) 그날 지식인들은 일련의 투옥사태와 해직·감시의 수난을 제외하면 항쟁의 현장에서 멀리 도피하고 말아서, 정작 한 사람의 시인도 민중적 전사로 싸운 바 없고, 그 처절한 학살의 피투성이 희생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떤 문학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날 모두가 총을 들고 장렬하게 죽었어야 하는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가? 많은 5·18문학은 이 죄의식에 대해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집단적 강박일 수 있다. 물론 광주의 비극을 전해들은, 살아남은 작가—지식인들의 그와 같은 죄의식, 특히 생명을 걸고 싸웠던 민중에 대한 그들의 부채감이 봉인된 진실을 드러내는 문학적 작업을 지속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윤리의식을 생성하는 데 일정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하거나 모두 살아남기를 열망했던 이들—지식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우

리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으로 긍정해 볼 것이 요구된다. 임철우 소설 『봄날』에서 진압군의 일원으로 광주에서 가해자의 역할을 맡았던 계엄군들 역시 시민들과 다름없는 피해자였다는 인식이 일정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5·18의 의미가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지식인의 부채의식 역시 긍정적으로 조망될 수 있어야 항쟁의 의의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의미한 전언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 살펴보았던 작품들에서는 아쉽게도 『봄날』의 윤상현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한 지식인의 표상을 만날 수 없었다. 『봄날』의 윤상현도 무장저항파들과 함께 도청 안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이 한국작가들의 무의식에 여전한 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민*

참고문헌

- 고 은. 1990. “광주 5월 민중항쟁 이후의 문학.”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편. 『광주 5월 민중항쟁』. 풀빛.
- 김선하. 2007. 『리콤피르의 주체와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 김성국. 2007.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심미안.
- 김태현. 1991. “광주민중항쟁과 문학.” 『그리움의 비평』. 민음사.
- 김호기. 2012. 『시대정신과 지식인』. 돌베개.
- 노서경. 2001.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프랑스 지식인들의 상상력과 도전』. 책세상.
- 류양선. 1989.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 문순태. 2000. 『그들의 새벽』. 한길사.
- 박광주. 1997. “5·18,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정치학회 편. 『5·18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샘물.
- 성민엽. 2004.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 손호철. 1995. “80년 518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해방50년의 한국정치』. 새길.
- 송기숙. 1990. “수습과 항쟁의 갈등.” 현대사회연구소 편. 『광주 5월민중항쟁 사료전집』. 풀빛.
- _____. 2000.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 신혜경. 2009.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 안병욱. 2007. “5·18광주민중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심미안.
- 윤지관. 1989. “광주항쟁의 도덕적 의미.”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해설. 현암사.
- 이강은. 2006.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심미안.
- 이정로. 1989. “광주무장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월간 노동해방문학』 1989년 5월호.
- 임철우. 1997. 『봄날』. 문학과지성사.
- 정 찬. 2002. 『광야』. 문이당.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홍성호. 1995.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지성사.
- 홍희담. 2003. 『깃발』. 창작과비평사.
-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 2005. 『지식인의 책무』. 강주현 옮김. 황소걸음.
- 베른하르트 타우렉(Bernhard H.F.Taureck). 2004. 『레비나스』. 변순용 옮김. 인간사랑.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adie Said). 2012.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옮김.
마티.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79. 『지식인을 위한 변명』. 박정태 옮김.
한마당.

투고: 2013.3.15 심사: 2013.4.12 확정: 2013.5.17